

북한 자유 주간 2009

4월26일 - 5월 2일, 워싱턴 디씨

저희와 함께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4월28일 화요일 오전11시
음악과 집회
 미국회의사당, 서쪽 잔디밭
대학살 전시회

5월2일 토요일 정오
중국 대사관 앞 시위
 3505 International Place, NW
 Washington, D.C. 20008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지는 전단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많은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서고,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싼 건강설과 후계자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 인권의 문제가 아닌 핵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등의 현 상황은 올 2009년 북한자유주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 및 난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탈북자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